



평화의 도구

제 178 호

2008년 6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부회장 : 음광인 아오스딩 sfo 562-902-1585
 서 기 : 김창순 데레사 sfo 714-447-0504
 회 계 : 홍병숙 올리안나 sfo 714-522-0675
 양 성 : 김영배 요한 sfo 714-447-8890
 평의회원보조 : 김재련 안젤라 sfo 562-694-1919
 평의회: 매월 첫째 일요일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8호실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형제회 소식

▶입회및 서약식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의 입회식과 콜베형제회및 Rowland Heights의 성녀 글라라형제회의 서약식이 7월20일(일) 월례회 중에 성 토마스 성당에서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의 서약식은 11월 월례회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입회및 서약준비를 위한 피정

일시: 2008년 7월12일(토)

장소: 토랜스 콘벤투알 수도원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워커 무숙자 봉사

매월 첫째주 일요일 8시 30분경 부터 준비를 시작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합니다.

주소:316 Cypress Ave, Santa Ana

*자세한 문의 : 평의회원

(지난 6월에는 성토마스 성당 신축기공식이 있었던 관계로 무숙자 봉사는 쉬었습니다.)

▶ 국제형제회 총회를 위한 기도

국제 평의회 회장단에서 12차 국제형제회 총회 및 5차 선거총회 결정 소식을 보내 왔 습 니 다 . 2008년 11월 15일에서 22일 까지

헝가리에서 “재속 프란치스코의 서약과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소속감”이라는 주제로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수호성녀 엘리사벳 성녀 탄생 800주년 기념 2주년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에 국제평의회 회장단은 총회를 준비하며 세계 모든 단위형제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며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마음을 열고 기도를 통하여 공동책임감과 일치감을 느끼도록 특별히 마련한 기도문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국제형제회 총회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참부한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은2 페이지)

▶선종

김상숙 아가다 자매님의 부군이신 김태익 토마스 형제님께서 지난 6월10일(화) 선종하셨습니다. 노환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토마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장례식은 6월 13일 (금) 오전 10시 성토마스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6월 식사준비
제6구역

김영배 요한 리병재 힐라리오
임봉남 안나 임민웅 베드로
배기옥 세실리아 박영원 데레사

▶ 7월은 제 7구역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6월14일 정계순 올리안나
6월16일 배종두 미카엘
6월23일 이용석 안토니오
6월29일 임봉남 안나

▶ 컵은 각자 준비하기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 컵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자신의 컵은 각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을 찾아서

리병재 힐라리오 SFO

오늘은 사순 제2주일이다.

어제 새벽에 검은 조약돌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빈 무덤을 찾았다. 그 빈 무덤은 아직 시신이 누워 있지 않은 새로운 무덤이다. 그 빈 무덤은 가로 2피트, 세로 6피트가 되는 총 12 스퀘어 피트 밖에 안되는 한평도 되지 않는 작은 평수이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평생을 아웅 다웅하면서 내 자신을 핍박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 사회에서 무엇하나 변변히 해 놓은 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위선 덩어리인채 언제 어떻게 해서 시신으로 변해 누워 있을지 모를 그 빈 무덤의 주인공인 내가 찾아가다.

그 무덤 머리에는 Podo Carpus Tree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앞으로 내가 가서 흙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나무는 무럭 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어 묵주알을 만들리라. 그런데 그 나무는 나를 기억해 줄지 모르겠다.

나는 이 빈 무덤앞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오늘 주일 복음 말씀에서 나온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철들어서 지금까지 살아 온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잘 따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했다.

“힐라리오야! 오늘은 내 차례인데 내일은 틀림없이 너 힐라리오 차례인 것을 알겠느냐?” 또, 2주일 전 재의 수요일 예절에서 “사람아(힐라리오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 갈 것을 기억하라! 그럼 기억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진정 나를 알고 있느냐? 네가 잘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헤아려 보아라! 너는 나를 알고 섬긴다 하면서 온갖 더러운 말씨, 가면 쓴 행동, 하지 않아야 할 험담, 너만을 위한 이기심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작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신 말씀이 귓전을 울려 주신다.

“힐라리오! 너 검은 조약돌을 왜 가지고 왔느냐? 그 조약돌은 처음에는 온통 모가난 몸을 돌렸던 것이 몇 십년 아니 몇 백년동안 풍랑에 부딪치며 반질 반질 해져서 생명이 없으면서도 나 야훼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너는 기껏 인생 70을 바라 보면서

나 야훼의 영광을 드러 내기는 커녕 몇 백번이나 배반만 했더냐? 너는 분명 살아 숨을 쉬고 있는 나의 님은 꼴이니 나의 영광을 드러 내어라!” 하신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2008년 2월17일 사순 제2주일에-



국제형제회 총회를 위한 기도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저희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심과
프란치스코 성소를 커다란 선물로 주심에
찬미 드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헝가리에서 있게 될 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자매들을
당신 친히 이끌어 주소서.

총회에 참석한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다가오는 6년간
재속회에 중요한 것을
식별하고 추진할 수 있고
또한 당신께서 원하시는대로 우리를 이끌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도록 봉사할
형제자매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복음과 회칙을
보다 더 잘 따르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어
당신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재건하는데
협력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재자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우리의 거룩한 수호자이신 성녀 엘리사벳과
성 루도비코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자유롭게 강론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형제들에게 대답하다

몇몇 형제들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사부님, 주교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강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 하느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는 여러 날 동안 한 곳에 서성거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부님이 교황님께 관면을 요청하신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령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을 몹시 나무라며 말하였다.
“작은 형제들인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회심시키지 못하게 하는군요.

나는 먼저 우리의 성스런 겸손과 존경심으로 주교님들을 개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있는 생활 방식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경외심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강론하여 사람들을 회심시켜 주도록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특전에 의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강론으로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이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특전이란 여러분의 자만심만을 끌어내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탐욕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주교님들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 주도록 부탁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들이 일단 회심이 되면 독실한 신앙인을 쉽사리 찾아 내게 될 것입니다. 내 경우, 하느님께 간청드릴 단 하나의 청은 사람들로 부터 어떤 회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회칙에 순명함으로서, 말보다는 내 자신이 수범함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회심시키도록 말입니다.”

- 왕덕의 거울 50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1회) (1195-1231)

기념일: 6월 13일



안토니오는 119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리스본의 대성당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는 15살이 되었을 때 아오스딩 규율 사제회 소속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1220년에 사제로 서품되었는데, 그는 이 때 사라센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북아프리카로 가던 이태리의 작은 형제들을 알게 되었다. 1220년 1월 16일 베라

르도가 이끌던 이 형제들은 모로코의 마라카쉬에서 순교하게 되었다. 이때 안토니오는 아오스딩 규율 수도회를 떠나 작은 형제회 수도 가족에 들어가 북아프리카 선교에 합류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해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병과 폭풍우 때문에는 그는 시실리 섬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는 북이태리와 프랑스에서 순회설교가로 활동하였는데, 특히 카타리파 이단에 맞서 설교를 하였다. 그는 프랑스 형제들의 수호자요, Romagna 관구의 관구봉사자가 되었다. 그는 사순설교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특히 파도바에서 했던 설교가 가장 유명한 것이었다. 그는 그의 생애 말년에 신비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였으며 자신의 설교들을 저술하였다. 긴 투병기간 끝에 안토니오는 1231년 6월 13일 파도바에서 가까운 클라라 수도원에서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1232년 5월 30일, 성령강림 주일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복되었다. 1946년 비오 12세는 그를 교회의 박사로 선포하였다. 그는 “복음적 박사”로 알려져 있다.

성령의 자유를 영접하다

L.J. 수에넨스 추기경

주님의 교회는 동일하고 한 분이신 성령께 모든 차원에서 순종한다. 교회는 볼 수 있는 현세적인 실재이기 때문에 물론 법과 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법이나 법 제정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율법주의나 법제일 주의를 다하여 피해야 한다. 교회법은 항상 성령께 대면해 있어야 하며 그분으로부터 활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복음은 가장 높은 뜻에서 최고의 법이다.**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의 성령께서는 교회에 절대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이 두 분을 모은 교계제도는 종으로서 섬겨야 한다.

중앙권력이 세계적 차원에서 세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너무 상세하게 법 제정을 시도할 때마다 율법주의의 위험은 증대한다. 이런 법 제정에는 매우 다양한 세계도처의 지방교회의 구체적 여건을 무시할 모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권력의 유혹은 교회의 일치를 법령이나 법조문을 통해 추구해 보려는 어리석음에 있다. 사실 그들은 일치와 확일성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는 동방교회의 율법주의의 유혹을 크게 경고하였다: “우리는 교회가 마치 무슨 조직인 양 다루어졌다. 이 조직을 굳히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런 노력의 덕분에 이제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내는 단계가 되었고, 제법 잘되어 가는 편이다. 그러나 사실은 잘 안되는 편일지도 모르나, 아물든 일이 진행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 기능의 가동이 하나의 기계로서의 가동이지 결코 생명체로서의 가동이 아니라는 데 있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총대주교가 자기 교회에 대해서 한 경고가, 생명체보다 조직이나 기구를 더 중대시하는 경향이었던면, 그의 경고는 라틴교회의 멤버인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라틴교회도 모든 사물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유혹을 언제나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오로 6세도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염려를 토로한 적이 있다.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보다 큰 자유를 누리는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그런 시대를 환영할 것이다. 형식적인 규율은 최소한으로 감소될 것이며, 자의적 처사며 불관용을 비롯하여 온갖 전제주의는 드디어 사라질 것이다.” (중략)

교회를 하나의 구조로만 간주하는 따위의 태도야말로 오늘의 신앙인들이 한사코 문제시하고 고발하는 오류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극단적 현상도 또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제도나 구조 때문에 피로에 지쳐 있을 때 그 구조들을 하루 아침에 모조리 타파해 버림으로써 새로운 구조들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유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오늘의 자유도 내일에 이르면 하나의 제도가 될 것이며, 그리하여 자유와 제도는 끝없이 엮바뀌며 이어나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를 좀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제도와 구조에 대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기보다는 차라리 교회의 신비를 심화하는 일이 더욱 중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아니면, 우리는 가짜 문제를 놓고서 정력을 소비하는 셈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이냐시오 드 라타규이에 대주교가 1968년 읍살라의 교회 일치협회 대회장에서 한 연설문에서 발췌한다. 그 연설문에서 그는 교회 생명의 원칙으로서 성령의 우위성을 인정할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권위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선교란 한낱 선전광고에 불과하고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전례란 한낱 과거의 회상일 뿐.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 안에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왕국을 낳는 산고로 신음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와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성김이 되며

선교는 성령강림의 축제가,

전례는 기념이자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차리라.”



- '성령은 나의 희망' 중에서 발췌 -